



전라지역
느티나무

탈이 나지 않게 쉬고 가는 느티나무

✳	지정번호	장수-9-9-25	✳	전북 장수군 계북면
	지정년도	1982		원촌리 1235-1
	관리기관	장수		35° 48' 43.06" N
	수령	320년		127° 37' 49.07" E
	수고	14m		
	흉고둘레	5m		

자동차가 많이 다니는 지방도로와 바로 인접한 보호수(장수-9-9-25) 느티나무는 민가가 있는 3갈래 도로 옆에 자라고 있다. 느티나무의 나이는 320년으로 추정된다. 나무높이는 14m, 가슴높이둘레는 500cm, 밑동둘레는 788cm 정도이다. 나무갓은 너비가 17m 가량이다. 원줄기는 곧게 자라다가 갈라지며, 남서쪽 방향의 높이 3m 정도까지 충전재 처리의 외과수술 흔적이 있다. 큰 가지는 높이 9m 정도에서 잘라져 충전재로 마감하여 보호하고 있고, 높이 10m 가량에서 가지를 절단하여 보호하고 있다. 전승하는 이야기는 쉼터, 소원 등과 관련이 있다. 느티나무 바로 옆에 작은 다리가 있는데, 이 다리는 예전에 왕이 지나갔다고 하여 '왕경다리'라고 부르고 있다. 일설에는 왕이나 원님이 이 다리를 지나가려고 할 때면

언제나 느티나무 밑에서 잠시 쉬었다가 갔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가는 길에 탈이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느티나무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전하면서 여러 행안들도 다리를 지나기 전에 쉬어 갔다. 또 다른 느티나무 이야기는 다른 곳에서 전승하는 느티나무 고목의 전설과 비슷하다. 동구 밖에 있는 커다란 느티나무에 치성을 드리면 아들을 낳게 된다고 하여 자식을 못 가진 아낙네들이 소원을 빌었다. 아들을 갖기 위한 소원목의 하나였다. 그리고 봄에 잎이 나오는 모습으로 그해 농사의 풍년과 흉년을 점쳤는데, 잎이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나오면 풍년이고 그렇지 않으면 흉년이 들었다. 마을 사람들은 아래 잎이 풍성하면 풍년이 들고, 위쪽 잎이 메마르거나 풍성하지 않으면 흉년이 든다고 믿었다.